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589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8월 1일)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제일건설, 첨단3지구 '첨단 제일풍경채' 15일 견본주택 개관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접수…중복 청약 가능

유주택자 및 세대원 청약 가능·거주지역 제한 無…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공급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15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2층~20층, 24개동, 전용면적 59㎡~84㎡ 총1천845세대, 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전용면적 59㎡ 소형부터 184㎡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들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분양일정은 9월 2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화) 1순위, 27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A2블록은 10월 11일(수), A5블록은 10월 10일(화) 각각 발표되며, 계약은 10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총 5일간 진행된다.

A2블록과 A5블록 각각의 당첨자 발표 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적용됐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A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3억 9천600만원~4억 8천800만원, 전용 59㎡는 2억 8천900만원~3억 5천900만원이다.

이는 인근에 분양한 단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보유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첨단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서는 9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오픈 3일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된다.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라면 등 생필품을 증정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 전기밥솥과 에어프라이어 등 1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첨단 제일풍경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인근 아파트들과 비교해볼 때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단 제일풍경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계약 고객이 입주 전까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자녀 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1551-1201으로 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광주시, '관광전문가그룹 전체회의 포럼' 개최해 양림권역 지속가능한 관광벨트 구축 논의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림권역 관광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그룹 전체회의 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양림권역에 산재한 근대역사·문화·예술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연계한 지속가능 관광벨트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림권역 관광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그룹 전체회의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구성된 양림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그룹에서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이 맡았고,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염관식 콘텐츠노리터 대표, 김혁 전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각각 발제했다.

또 최흥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김유정 수피아여자고등학교 동문회장, 문희성 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등 민관학계의 전문가들과 광주관광공사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양림권역 개발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양림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여행지로 만들어 갈 것인지 양림동만의 매력적인 특징을 만들고 각인시키는 브랜딩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관광도 없다. 주민과 함께하는 로컬비지니스 관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관식 ㈜콘텐츠노리터 관광경영 컨설턴트 대표는 '관광트랜드 분석과 뜨는 관광지의 성공요인'이라는 발제에서 "2023년 여행 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인 것처럼 해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통해 미래의 관광패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며 "성공한 여수 밤바다, 강진 푸소처럼 뜨는 관광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보전을 하면서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양림권역의 고유한 가치와 본질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는 특화관광 전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혁 전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양림권역 관광자원화사업 민자유치 아이디어 메모'라는 주제로 지난 3년 동안의 구글 빅데이터 여행 카테고리를 분석한 뒤 ▲별이 잘 드는 마을, 양림동의 해시계 ▲엠지(MZ)세대를 위한 퍼레이드형 펭귄 플래시몹 정기 노출 ▲기가셀피(Giga Selfie) 펭귄 카메라 ▲광주천 도심교통형 곤돌라, CPT(Cable Propelled Transit) ▲양림동 왁스뮤지엄 밀랍인형박물관 ▲사직공원 대관람차 등 다양한 민자유치 관광사업을 제안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총괄본부장은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양림권역을 광주 대표 남도관광 1번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호 소 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가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 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 측 이사 선임 몫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찬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 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해가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 이사장을 비롯한 동조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 의 ,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 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 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2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 문 수